PB 파이프 에이콘 · 동양 격전

저질시비 · 고발 공방전 … 시장질서 정립 시급

92년까지 에이콘이 독점해온 PB(Polybutylene) 파이프 시장에 93년초부터 동양프라스틱이 본격 참여하자 시장독점을 위한 에이콘과 시장전입을 위한 동양프라스틱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에이콘(대표 이영찬)은 그동안 독점해온 PB파이프 시장에 93년초 동양프라스틱이 신규참여하자 동양프라스틱이 저가의 원료를 사용해 자사 제품을 모방해 공급하고 있어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설비기업 및 건설기업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동양프라스틱도 국립건설시험소에 에이콘 제품을 고발하기에 이르는 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동양프라스틱은 에이콘이 한일건설에서 시공한 포천 베어스타운이 전 연결구의 그립링이 파손, 전체 건물의 누수건을 비롯, 11건에 이르는 하자내용을 첨부 고발했다.

이외에도 에이콘 제품을 모방했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골드산업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일부 건설기업에서 동양프라스틱 제품을 25%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에이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판매방법을 활용한 것은 한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이콘도 맞대응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두 기업간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같이 경쟁이 표면화된 배경에는 동양프라스틱이 기존 에이콘의 대리점(대전)에서 독립해 기존 공급망을 토대로 경쟁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감정적인 문제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국내 PB파이프 시장은 87년 한국바톨이 최초로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건설기업들의 보수적 경향으로 어려움을 겪다 부도를 내고 90년초 골드산업이 인수해 원료 공급을 기존 Shell에서 Mitsui로 전환하였다.

<화학저널 1993/10/18>